2년 만에 또…광주시, 택시 기본요금 500원 올린다

시민공청회서 타지역과 형평성·업계 상황 고려해 잠정 결정
기본요금 4800원 등 올해 13.35% 인상…10월께 최종안 공고

광주지역 올해 택시요금 인상안이 기본요금 4800원(기본거리 1.7㎞), 거리운임(132m)·시간운임(32초)당 1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광주시의 13.3% 인상안 제시에 택시업계는 타 지자체 요금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잠정안이 도출됐다.

광주시는 22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택시요금 현실화를 주제로 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택시업계와 시민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2025년 택시요금 조정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2023년 7월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당시 광주시는 업계의 경영환경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년 뒤 재인상을 약속해 올해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광주시 2025년 택시적정운임·요율 산정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토대로 올해 13.35% 인상안을 제시했다.

택시 운전자들은 생계난을 호소하며 인상을 요구했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운송원가 산정자체가 법인택시에 맞춰졌다"면서 "한달 중 22일 동안 택시 운전을 해도 월 200만원 정도에 그쳐 4인가족이 생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는 "운송원가 산정은 재무재표가 있는 법인택시에 맞출수 밖에 없고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다"면서 "이번 용역결과 인상안을 바탕으로 하면 월 240여만원의 월급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운전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었다.

광주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곧 서울과 대구가 또 인상을 앞두고 있어 결국 광주 택시요금이 가장 낮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논의 끝에 개인택시업계와 법인택시업계가 뜻을 모아 광주시에 48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타지자체 택시 운임·요율 체계

구분		광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기본요금(2㎞)		4,300	4,800 (1.6㎞)	4,800	4,800 (1.6㎞)	4,500 (1.7㎞)	4,300 (1.8㎞)	4,500
거리요금(100원)		134m	131m	132m	135m	125m	132m	125m
시간요금(100원)		32초	30초	33초	33초	31초	33초	30초
할증	시외	35%	20%	30%	30%	30%	30%	30%
	심야	24~04시 (20%)	22~04시 (00~02시 30% 그외 20%)	23~04시 (00~02시 30% 그외 20%)			23~04시 (20%)	22~04시 (20%)
평균거리(5㎞)요금		7,200	8,100	7,700	8,100	7,800	7,400	7,600
인상시기		'23.2.1.	'23.2.1.	'23.6.1.	'23.7.1.	'25.2.22.	'23.7.1.	'25.3.10.

〈광주시 제공〉

중재안에 따르면 심야 할증은 밤11시~자정·새벽2시~새벽4시 20%, 자정~새벽2시 30%로 하고, 택시 시계외 요금(시 경계를 넘어 운행할 때 적용되는 추가 요금)은 기존 35%에서 40%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다만 나주 혁신도시는 기존 35%에서 20%로 하향하는 안도 제안됐다.

광주시는 택시업계가 제시한 이번 안을 기본안으로 잡고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본안을 토대로 광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택시정책 심의 위원회와 물가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의회의 다음 회기가 8월 22일 이라는 점에서 최종안은 10월께에 공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택시업계에서 잠정안을 제시해준 만큼 광주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최종안을 만들겠다"면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택시업계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해민들 구호물품 후원 22일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 체육관에서 (사)한국나눔연맹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후원한 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강 시장, 지하철 도로포장 12월까지 종료 거듭 강조

"완료되지 않으면 시장직 그만 둘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공사를 올해 12월 22일까지 반드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 북구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12월 22일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포장이 완료되지 않으면 시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택시요금이 현실화공청회 시작 전 광주 주요 교통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강 시장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당초 1단계 공사구간 도로 개방 완료 시점을 지난달로 예고했지만, 6개월 가량 연기됐다.

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죽겠다"면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빚은 빚대로 지고 (도로통행 제한 등으로) 시민불편까지 가중돼 욕만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90% 이상 완료됐으며 막바지 작업 중"이라면서 "시민들은 불편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 전면 개통시기가 늦어진데는 일부 공사구간(금호지구, 백운광장, 광주역 뒤편)에서 발생한 대량의 경암(硬巖)과 지장물(상하수도관이나 전기배선 등) 때문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대응 도시철도 태스크포스(TF)팀 운영에 들어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의회 예결위원장에 무소속 심창욱 의원

개원 이래 첫 무소속 위원장…부위원장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

심창욱 의원

김용임 의원

광주시의회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을 놓고 의원들 간 갈등을 빚어온〈광주일보 7월21일자 5면〉 가운데 22일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시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올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하반기 추경과 내년도 본 예산 심의를 맡게 되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이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무소속 의원에게 내준 것이어서 향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입장이 주목된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무소속 심창욱(북구 5선거구)시의원,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시의원을 선출했다. 의원들 간 이견이 없어 협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결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 단계부터 의원들 간 갈등이 빚어져 위원장 선출을 놓고 진통이 예상됐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견을 제시한 시의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4개 상임위에서 각 2명씩, 의장이 1명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예결위원은 심창욱 위원장과 김용임 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수훈(서구 1선거구)·김나윤(북구 6선거구)·박미정(동구 2선거구)·이귀순(광산구 4선거구)·정다은(북구 2선거구)·정무창(광산구 2선거구)·채은지(비례) 의원 등이다.

당초 예결위원 구성을 지난 회기에 마무리했어야 했지만, 의원들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추천 단계부터 잡음이 일었다.

민주당 서임석 시의원이 1년 전 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차기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소속 상임위에서 예결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해 갈등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신수정 의장이 의장 추천 몫으로 무소속 심창욱 의원을 추천하면서 의원들 간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1년 전 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가 깨지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신 의장이 추천한 심 의원이 예결위원장까지 맡게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장이 음주운전으로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추천하고, 무소속 예결위원장까지 만든 셈이라고 시의회 안팎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의원들이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계산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예결위 처음 구성부터가 문제였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위원들이 지역구에 대한 예산 배분 등의 모종의 거래 등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